

장수·순창 기본소득 ‘효과’...인구·상권 숨통 틔워

장수·순창 합산 1541명 인구 유입 시행 4개월 만 가맹점 435곳 증가 지급액 259억 중 165억 지역 소비 주민 65% 설문조사서 ‘긍정’ 평가

전북도·장수군·순창군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 4개월 만에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며 농촌 살리기 정책의 새 모델로 자리잡았다.

지난 22일 도에 따르면 시범사업 시작 전 2,200개소였던 가맹점은 올해 4월 말 기준 2,635개소로 435개소가 늘었다. 읍 지역에 200개소가 새로 등록된 데 더해, 상권이 취약했던 면 지역에 음식점·생활서비스업·일반소매업 등 235개소가 문을 열며 소비 인프라가 확충됐다.

인구 변화도 뚜렷하다. 같은 기간 장수군 672명, 순창군 869명 등 두 지역에서 합산 1,541명이 새롭게 유입됐다. 매월 실거주 주민에게 지역화폐로 15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 귀농·귀촌을 끌어당기는 실질적인 유인책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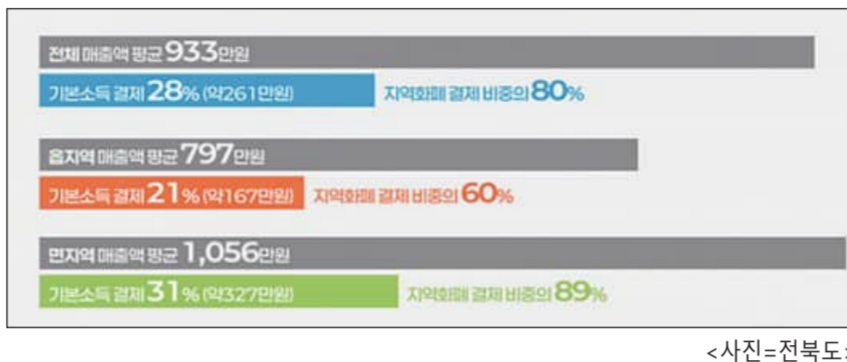
농어촌 기본소득은 4월 말까지 총 2만 5,917명에게 259억 원이 지급됐으며 이중 63%인 165억 원이 지역 내에서 소비됐다. 업종별로는 음식점(22%), 마트·식료품(14%), 주유소(10%) 순으로 생계

형 소비가 주를 이뤘다. 주민·가맹점주 1,222명이 참여한 1분기 설문조사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뒤따랐다. 기본소득이 거주 여건·사회서비스·사람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주민이 65% 이상이었으며, 67%는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소비처를 읍에서 면으로 옮길 의향이 있다”고 답해 면 상권 회복 가능성을 내비쳤다.

가맹점주들의 반응도 고무적이다. 전체 결제 중 기본소득 결제 비중은 28%에 달했고, 응답 가맹점의 51%가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기본소득 도입 이후 새로운 고객이 늘었다”는 응답도 50%에 이르렀다. 특히 면 지역 가맹점의 기본소득 결제 비중(31%)이 읍 지역(21%)보다 높아 소외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가 뚜렷했다.

도는 지역경제 선순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장수·순창군, 전북연구원, 대학 등 민·관·학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농어촌 기본소득 협의체’를 가동 중이다. 협의체는 ▲가맹점 부족 해소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돌봄·문화 연계 생활서비스 확대 등의 실행 전략을 마련해 두 군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장수군은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RED-FOOD 직구마켓’을 운영하고, 온라인 쇼핑몰 ‘장수몰’에 기본소득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오는 7월부터는 문화·복지 콘텐츠와 장터를 결합한



<사진=전북도>

‘행복바탕 이동장터’를 5-6개 마을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 농산물을 50% 이상 사용하는 업소에 혜택을 주는 ‘선순환 소비 인증제(6월)와 면 지역 소비 시 장수몰 쿠폰을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을 앞두고 있다.

순창군은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해 유등사회적협동조합·풍산면주민자치협동조합 등이 지역 농산물과 육류를 직접 배부·판매하고 있다. 6월 중에는 지역생활센터·농협과 이동식 ‘온정장터’를 연다. 7월에는 기아로부터 차량을 지원받아 식품 접근이 어려운 오지

에 이동장터를, 고령층을 위해 버튼 하나로 생필품을 주문·배달하는 ‘AI 로컬 버튼 서비스’도 취약지역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이에 대해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인구 유입과 지역 상권 회복이라는 가시적인 선순환을 만들어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협의체와 함께 주민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정책을 고도화해 최고의 농촌 살리기 모델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사진=전북도>

김종훈 부지사,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 현장점검

22일 익산 찾아 운영 현황 확인 지급률 64.7% 전국 두번째 집행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22일 익산시 동산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했다.

김 부지사는 이날 지급 초기 수요가 집중되는 상황에 대비해 접수와 지급 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고령층과 거동으로 시범 운영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 19일 고창과 정읍에 이은 세 번째 현장 점검으로, 도는 고유가 장기화와 생활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군별 집행 상황을 점검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지급 초기에는 행정복지센터 민원 창구 혼잡, 선불카드 재고 부족, 절차 문의 증가 등이 예상되는 만큼, 신속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민원 처리 속도 향상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은 이달 18일부터 오는 7월 3일까지 진행

된다. 대상은 가구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도민 120만 2,903명이다.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운영되나, 1차 지급 대상자는 요일제 적용에서 제외돼 보다 빠르게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 운영해 접근성도 높였다.

2차 지급 나흘째인 21일 기준 지급률은 64.7%를 기록해 전국 도단 위 광역자치단체 중 2번째로 빠른 집행을 보이고 있다. 도는 이번 재원이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회복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사용 기한인 8월 31일까지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 지역 내 선순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김 경제부지사는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찾아가는 접수와 밀착 대응을 강화해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급받은 혜택을 사용하기 위한 지역 상권에서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李대통령 지지율 반등...“여당 당선돼야” 결집

갤럽 “서울·PK도 여당 우세 흐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4%로 상승 민주당 45%·국민의힘 22%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고 서울과 부·울·경지역에서 민주당 단체장 지지율이 오르는 등 여당층이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9~21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주보다 3%포인트 상승한 64%로 나왔다. 앞서 2주새 6%포인트가 급락한 데 따른 지지층 결집 때문으로 해석된다.

부정평가는 전주와 동일한 28%로 나왔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 대통령의 직무에 대한 긍정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성향 진보층에서 90%를 웃돌고, 부정평가는 국민의힘 지지층(69%)·보수층(52%)에 많았다. 중도층은 64%가 긍정적, 28%가 부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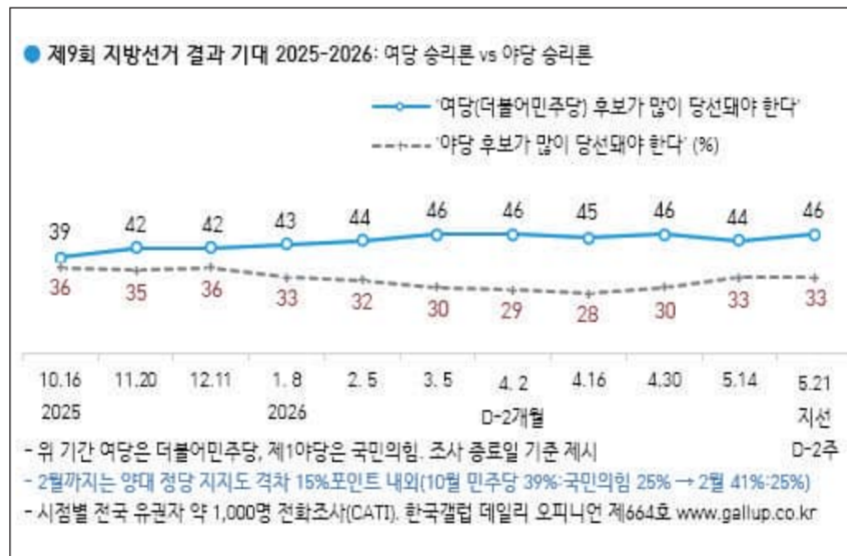
다. 연령별 직무 긍정률은 40·50대에서 70%대 중반, 60대 이상에서 60% 내외, 20·30대에서 50% 내외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22%,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2%, 진보당, 이외 정당/단체 각각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6%다. 양대 정당 지지도 격차는 4월 초 30%포인트에서 5월 중순 현재 23%포인트로 줄었다.

민주당은 전주와 동일하고 국민의힘은 1%포인트 하락했다.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80%가 더불어민주당, 보수층에서는 52%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15%,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4%다.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46%,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33%로 나타났다. 성향별로 진보층 76%가 여당 승리, 보수층 63%는 야당 승리를 기대했다. 중도층은 야당(32%)보다 여당(45%) 쪽이었다. 지난



<사진=한국갤럽>

주에 비해 여당 당선은 2%포인트 늘었고 야당 당선은 동일했다.

특히 지난주 40% 동률로 나왔던 서울이 이번엔 여당 당선 44%, 야당 당선 39%로 격차가 벌어졌다.

지난주 여당 당선 37%, 야당 당선 43%로 뒤집혔던 부산울산경남이 금주에는 여당 당선 43%, 야당 당선 35%로

다시 뒤집혔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2.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도,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확대

배합사료·친환경 인증 직불제 운영 해양오염 저감·어가 경영안정 모색

전북도가 친환경 수산물 생산 확대와 어가 경영 안정을 위해 ‘2026년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제 ▲친환경 인증 직불제 등 2개 유형의 직불제를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이번 사업은 신청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보다 5억2천만원 늘어난 8억5천만원 규모 사업비로 부안 등 도내 6개 시군, 28개 어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제는 생사료 사용에 따른 해양오염을 줄이고 수질 개

선을 유도하기 위해 해수면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배합사료 사용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어가당 최대 2억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매출 직불금이 지급된다.

친환경 인증 직불제는 HACCP 인증과 유기수산물, 무항생제 등 친환경 인증을 받은 어가를 대상으로 생산·판매 실적에 따라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증 기간 중 발생한 친환경 수산물 생산·판매실적의 15%를 연말에 지급하며, 어가당 지원 한도는 어류 6,500만 원, 기타 품목은 3,000만 원이다.

체중적 전북도 수산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어가 소득 안정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LIFE

“생명을 꽃피우는 가장 따뜻한 나눔”

헌혈 합시다!

완주 만경강 신천습지서 생태 탐사 펼쳐져

22일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
완주 만경강 신천습지서
생물다양성 탐사대작전 개최



‘완주 만경강 신천습지 생물다양성 탐사대작전’이 지난 22일 완주군 삼례읍 신천습지 일원에서 개최됐다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하고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후원하는 ‘전북 완주 만경강 신천습지 생물다양성 탐사대작전’이 지난 22일 완주군 삼례읍 신천습지 일원에서 개최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UN이 지정한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5월 22일)’에 맞춰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에 도민들이 직접 현장에서 생태계를 탐사하며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을 체감하는 자리가 됐다.

지난 2015년 전주 견지산과 오송제에서 첫발을 댄 ‘전북 생물다양성 탐사

대작전’은 지역 내 생물종 보호를 위해 시작된 시민 참여형 과학 활동이다. 올해는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완주 만경강 신천습지를 대상으로 (수서)곤충, 식물, 양서파충류 등 3개 분야에 걸쳐 전문가와 도민 50여 명이 탐사단을 꾸려 진행됐다.

분류 중 생태 경관과 환경이 가장 안정된 구간으로 꼽힌다. 고산천과 소양천 두 하천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식생 발달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으며, 강물 내부의 하중도가 잘 보존되어 자연경관이 매우 우수한 지역이다.

전북지속협 김용빈 상임대표는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다양한 수생생물이 공존하는 신천습지에서 탐사 활동을 하게 되어 뜻깊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도민들이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후원을 맡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이번 탐사대작전이 신천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역 환경 보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으로서 지역 생태계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조지훈 후보, 시민 삶·도시 활력 높이는 혁신 다짐

조 후보, 싱크탱크 ‘희망제작소’,
‘국민총행복전환포럼’과 협력

조지훈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후보는 지난 22일 보도자료와 내고 희망제작소·국민총행복전환포럼 등 민간 분야의 싱크탱크, 정책기구와 시민의 삶을 책임지고 도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협약과 소통의 길을 마련했음을 밝혔다.

조지훈 전주시장 후보는 목민관 포럼 등을 운영하며 지방자치 중심의 사회혁신 의제를 주도해온 희망제작소와 정책협약식을 열어 ‘주민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전주 희망 만들기’를 함께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혁신 정책 발굴 △시민주권 강화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지역순환경제 구축 △보편적 삶의 질 향상 등을 핵심적인 시정 운영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어서 조지훈 후보는 국민총행복(GNH: Gross National Happiness)을 새



로운 사회 패러다임으로 제시해온 국민총행복전환포럼(이사장 박진도)과 간단 회의를 통해 ‘시민 행복 전주’를 위한 가치 정립과 기초 수립을 협약했다.

조지훈 전주시장 후보는 전주 발전과 번영의 최종 지표는 시민의 구체적인 삶의 나아지고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에 있

는 것이며, 혁신이 단순한 선언에 머물지 않도록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설계해 지속적인 정책 협의의 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지훈 전주시장 후보는 시민사회가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정책 노하우는 민선 9기 전주시정을 이끌어가는 강한 추진력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을 시민주권 전주로 바로 세우겠다는 출마 선언부터의 원칙 위에 도시를 변화시키는 희망과 행복의 정책을 더하겠다고 뜻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지훈 전주시장 후보와 희망제작소의 정책 협약식에는 희망제작소 윤석진 이사장과 송정복 목민관포럼 사무국장이 참석했으며, 국민총행복전환포럼과의 정책 협약식에는 조지훈 후보와 김인선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운영위원장이 함께했다.

/장정철 기자

세계 겨냥 한 전주시 글로벌 인재 육성

전주인재육성재단, 장학생 모집
단기 해외연수(미국) 지원

전주시와 (재)전주인재육성재단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12일까지 글로벌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제6기(2026-27) 전주시 글로벌 인재 양성 영 어능력 강화사업 장학생’을 공개 모집한다.

사업은 글로벌 마인드와 애환심을 지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말하기 위주의 국내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단

기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발된 장학생들은 △어학집중코스과 자체평가, 우리지역 탐방 등으로 구성된 4개월 과정의 국내 연수 △글로벌기업 및 대학투어, 해외도시 투어 등 약 2-3주 과정의 국외연수 △개인활동보고서 작성 및 보고회 등 1-2주 과정의 활동보고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연수 국가는 미국이다. 선발인원은 15명(도내 대학생 10명, 도 외 대학생 5명)이며, 이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1명을 선발한다.

연수생 자부담 비용은 1인당 200만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면제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전주시민의 자녀로서 전북특별자치도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검정고시 졸업 자격을 합격한 대학생이다.

성적은 직전 학기 B+이상이어야 하며, 선발될 경우 어학연수 참여를 위해 올해 2학기를 휴학해야 한다.

선발심사기준은 1차 서류심사를 통해 학업성적 30점과 어학자격증 20점, 생활정도 20점을 기본으로, 자원봉사 실적 최대 1.5점을 가산점으로 반영해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게 된다. 이후 2차 면접 심사 30점을 합산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장학생이 선발된다.

접수 방법은 (재)전주인재육성재단 사무국(안산구 현무1길 31-5)에 직접 방문하거나, 재단 누리집(www.jinjae.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우리 아이 안전장치 ‘실종예방 사전등록’ 하셨나요?

전북경찰 실종아동 사전등록 독려

전북경찰청(청장 이재영)은 ‘실종아동 예방의 날(5월 25일)’ 실종 발생 시 신속한 발견과 조기보호 위한 ‘실종예방 사전등록제도’ 참여를 당부했다.

아동 실종 신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아동과 치매환자,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경우 신속한 신원확인 여부가 발견 시간 단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예방 사전등록 제도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아동 등의 지문·사진·보호자 연락처 등을 사전에 등록해 두고, 실종 발생 시 경찰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대상자를 확인해 가족에게 인계하는 제도이다.

전북의 경우 지난 4월말 기준 실종예

방 사전등록 대상 인구(18세미만 아동, 지적 등 장애인, 치매환자) 282,669명 중 186,587명이 등록, 66%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으나 지속적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다각적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사전등록 방법은 보호자와 함께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방문, ‘안전Dream’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손쉽게 가능하며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정신 장애인, 치매환자 등 실종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등록이 가능하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역 축제장은 물론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을 직접 방문하여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전북대병원 어린이집 원아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전북대학교병원 직장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실시됐다.

교육은 전북대병원이 전북 광역 새싹지킴이병원으로서 아동의 권리와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학대 예방 문화 확산을 이끌어 내기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교육은 ‘나는 소중한요’ 주

제로 마련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 보호하는 방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아동 참여 프로그램으로 퀴즈 활동, 노래·유희 등 흥미를 유발하는 다채로운 내용을 통해 원아들이 자연스럽게 아동 권리와 안전의 중요성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의 특별한 밤마실 여정

‘2026 전주국가유산야행’ 개최

전주에서는 특별한 밤마실 여정이 펼쳐진다.

전주시 특별한 밤마실 여정은 내달 5일·6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전주한옥마을과 경기전, 풍남문, 전주향교, 전라감영 등 전주 구도심 일원에서 ‘2026 전주국가유산야행’을 개최한다.

밤마실 여정은 ‘천년고도 전주, 역사 속 밤마실’ 슬로건으로 진행된다.

야행 핵심으로는 후백제 왕도였던 완산주(完山州)부터 조선시대 전주부(全州府)를 지나 오늘날 전주시에 이르기까지, 전주라는 도시가 간직한 다층적인 역사를 축제 콘텐츠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야행은 프로그램별 8개 분야 25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특히 스토리와 체험 요소를 한층

더 강화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전주의 천년 역사를 쉽고 흥미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여기에 후백제 왕도로서 전주가 지닌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더욱 깊이 있게 담아냈다.

주요 프로그램은 △잃어버린 후백제를 찾아서 △견훤대왕배 씨름대회 △후백제의 왕궁, 산성행 등이다.

이외 올해 전주야행에서는 △국가유산 공모 체험 ‘경기전 쯔미실룩’ △미식 숭배축제 ‘향교괴담’ △야간 경관 조성 ‘국가유산 빛나는 공간’ △풍남문 국악 공연 ‘뜻밖의 국악’ △역사 활용 미니게임 ‘국가유산 진검승부’ △차 한 잔의 휴식 ‘국가유산 달빛차회’ 등 각각 색의 프로그램을 새롭게 리뉴얼해 국가유산이 가진 또 다른 매력에 관광객이 몰입할 수 있도록 했다.

/김명태 기자

전주위기청소년 ‘꿈멘토와 꿈꾸다’ 운영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진로 탐색 두 번째 지원

기청소년의 진로 탐색을 지원하고 있다.

전주시 위기청소년 대상으로 한 직업체험 프로그램 ‘꿈멘토와 꿈꾸다’가 운영됐다.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혜선 센터장은 지난 23일 전주시에 거주하는 위기청소년 21명을 대상으로 올해 두 번째 직업체험 프로그램 ‘꿈멘토와 꿈꾸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꿈멘토와 꿈꾸다’는 청소년들이 꿈멘토를 직접 만나 직업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를 위해 전주시 청소년안정망 1388청소년지원단(복지지원단) 소속 기관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로 위

협여한 청소년들은 조영희 꿈멘토(공진요리제빵미용직업전문학교 부원장)로부터 파티쉐가 되기까지의 과정과 재능기부 활동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기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만의 작품을 직접 제작하는 체험도 진행했다. 올해 공진요리제빵미용직업전문학교는 특히 위기청소년들이 희망했던 파티쉐 직업 체험도 무료로 제공했다.

한편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대상 무료 프로그램 및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보건소 ‘제4회 건치 노인 선발대회’

전주시는 ‘제81회 구강보건의 날’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가진 노인을 선발하는 ‘제4회 건치노인 선발대회’를 개최한다.

건치노인 선발대회는 평소 꾸준한 구강 관리로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고 있는 노인들을 격려하고 노년기 구강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참가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29일까지 전주시보건소와 덕진보건소로 사전 예약 후 신청하면 된다.

대회는 전주시보건소와 덕진보건소에서 진행되는 1차 검진인 예선을

거쳐 잔존치 개수와 치주 상태, 보철 개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고득점자 20명이 본선 진출자로 선발된다.

이후 시는 오는 6월 9일 본선 및 시상식을 통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자를 비롯한 본선 참가자에게는 전주시치과사회 후원으로 상장과 상품 등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시는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건치노인 선발대회와 더불어 오는 6월 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구강보건의 날 캠페인도 운영한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립교향악단 ‘클래식 프리즈마’ 개최

전주시립교향악단은 오는 29일 오후 7시 30분 덕진예술회관에서 해설과 함께하는 렉서 콘서트인 ‘클래식 프리즈마’의 아홉 번째 공연인 ‘조용히 빛나는’을 선보인다.

‘클래식 프리즈마’ 공연은 프리즈를 통해 다양한 빛의 아름다움을 보듯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다채로운 악기의 색채를 경험하는 공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소규모 실내악 편성을 통해 악기들이 만들어내는 섬세한 울림과 조화를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다.

특히 바이올린과 호른, 피아노 등 다양한 악기 조합이 만들어내는 풍부하고 아름다운 색채와 호흡을 해설과 함께 쉽고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돼 시민들의 클래식 음악 이해를 돕는다.



이번 공연에서는 트라클레르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e단조’ △소스타코비치 ‘두 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5개의 소품’ △바체비치 ‘바이올린 4중주’ △브람스 ‘호른, 바이올린, 피아노를 위한 3중주’ 등이 연주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비아파트 공급 위축... 매입임대 확대 나서

2년간 규제지역에 6.6만호 공급... LH·HUG 등 지원 확대

전월세 시장의 중요 공급원인 비아파트가 민간 시장 위축으로 공급이 감소한 가운데,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기간에 집중 공급 가능한 매입임대를 확대해 시장의 부족분을 직접 메워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향후 2년(2026년부터 2027년까지) 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되, 서울·경기 규제지역에 6.6만호를 집중 공급한다고 밝혔다.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규제지역은 당초 목표물량을 초과하더라도 매입을 확대 추진해 비아파트 시장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2022년 이후 누적된 수도권 주택 공급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출범 3개월 만에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해 실행력 높은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1.29 후속방안을 발표해 관계부처간 칸막이 없이 국민 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도심 내 신속하게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의 공급 부진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다각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며, 첫 번째로 공공이 신속매입 임대 사업을 통해 선도적으로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매입임대 공급 확대, 조기 착공·준공을 위한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다.

- 1) 규제지역 중심 매입임대 물량 획기적 확대
우선 향후 2년간 수도권 매입임대 9만호 중 규제지역에 6.6만호를 공급(신축매입 약정체결, 기축매입)할 예정으로, 이는 과거 2년 3.6만호 대비 약 2배 수준이다. 특히, 규제지역 내 신축매입은 지난 2년간 3.4만호에서 향후 2년간 2만호로 증가된 5.4만호로 확대한다.

6.6만호 공급 이후에도,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규제지역 내 매입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매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매입물량 확보를 위해 전체 동(棟) 단위가 아닌 부분매입 방식도 허용해 LH가 보다 많은 민간 사업장의 미분양 리스크 해소 및 자금을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을 완화해 다양한 임지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한다.

아울러 기존주택 매입임대도 규제지역에 한해 건축연한 기준(그 외 지역 10년 이하)을 적용 배제해 매입 대상과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2) 사업자 자금조달 애로 해소
그간 주택건설 업계 타운홀 미팅(국토부장관 주재, 5.14) 등에서 제기된 현장 애로를 바탕으로 신속매입 약정 후 조기에 착공 및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대폭 낮춘다.

(착공 전 초기사업비 지원) LH가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상향하고,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는 HUG PF대출 보증지원을 강화해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토지비의 10% 수준까지 대폭 낮춰 민간 참여를 활성화한다.

(공정률에 따른 공사비 지급) 착공 후에는 매입대금 지급방식을 기존 3단계(골조공사-준공-품질검사 후) 지급에서 공정률3개월 단위에 따른 지급방식으로 개선해 사업자의 자금 부족 애로를 해소한다.

(사업 부실 방지) 지원되는 자금은 신탁사 대리사무 등을 통해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고, LH와 HUG는 신탁우선수익권1순위를 확보해 사업의 부실을 예방할 계획이다.

3) 사업자 설계부담 완화 등으로 조기 착공 유도

사업자의 설계시간 단축과 매입임대주택의 품질 평준화를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LH가 다양한 유형의 고품질 표준평면도 배포 및 사전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또한, 모듈러 시범사업 등 최신 공법 적용으로 공기단축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 공사비연동형으로 약정한 물건에 대해서는 '先 착공 - 後 공사비 검증'방식을 도입해 착공 시기를 조기화하고, 토지확보 또는 인허가가 장기 지연 중인 물건은 약정해지 등 패널티 부과를 추진해 사업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주택건설 현장과 소통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일회성 문제 진단 → 일회성 대응에 그쳤던 과거 정책 방식에서 벗어나, 공급 목표 달성시까지 쉼 없는 현장 애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택건설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택지 조성 및 1.29 공급부진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공급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인 민간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이 적극 매입·공급에 나서 시장 정상화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월세 시장 안정 등을 위해 비아파트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하나로마트 선도농협 전북협의회 정기총회

안전한 농산물 공급 앞장

지난 22일 농협전북본부 회의실에서 '2026년 하나로마트 선도농협 전북협의회 정기총회'가 개최됐다.

하나로마트 선도농협 전북협의회(회장 진안농협 김문중 조합장)는 "소비자와 농업인이 상생하는 마트사업을 선도하는 지역농협 조합장 21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회원 농협간의 협력을 통해 도민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도 사업결

산 보고와 함께 고품질·고급리에 따른 소비 위축 및 온라인시장·식자재매장 급성장 등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2026년도 사업계획'을 심의·의결 했다.

김문중 협의회장(진안농협 조합장)은 "소비자와 농업인이 상생하는 전북 농산물 유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회원 농협 간 유기적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본부장은, "지역하나로마트가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활성화의 중추역할을 하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한국은행 전북본부, 5월 소비자동향조사

전월 대비 5.5p 상승

전북지역 5월 중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100.5)보다 5.5p 상승한 106.0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전월(99.2)대비 6.9p 상승한 106.1으로 확인됐다.

소비자동향지수(CSI) 주요지수에서는 현재생활형편(90→92), 생활형편전

망(93→98), 가계수입전망(96→99), 소비자출전망(107→109), 현재경기판단(76→87), 향후경기전망(86→94)으로 전월대비 상승했고 여타지수 금리수준전망(113→113), 취업기회전망(86→89), 가계저축전망(94→97), 가계부채전망(99→101), 주택가격전망(106→114), 임금수준전망(119→123)에서도 각각 오름세를 보였다. /정소민 기자

전북TP '글로벌강소기업 성장지원' 강화

맞춤형 프로그램 및 수출지원 유관기관 연계

전북테크노파크가 전북지역 수출선도 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을 본격화한다.

전북테크노파크는 도내 글로벌강소기업 지정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글로벌강소기업 실무자 간담회'를 지난 2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2026년 글로벌강소기업 지정기업은 △비나텍(주) △다산기공(주) △에스시디(주) △(주)다시 △(주)지노모터스 △(주)지엠에프 △(주)시지트로

닉스 △대립씨엔씨(주) △익산주얼리협동조합 등이다.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도가 추진하는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강소, 강소+'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아울러 기업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안내와 수출지원 유관기관 연계 등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간담회에는 글로벌강소기업 지정기업 관계자와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 신용보증기금 전주지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주요 내용에는 △2026년 글로벌강소기

업 지역자율프로그램 안내 △한국무역협회 수출지원시책 설명 △신용보증기금 금융·보증지원 제도 안내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질의응답 등이 진행됐다.

특히 전북테크노파크는 현재 모집 중인 '2026년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강소, 강소+' 지역자율프로그램'과 관련해 기업 맞춤형 지원 분야를 상세히 안내하며 참여기업들의 관심을 모았다.

지역자율프로그램은 기술개발·사업화, 공정개선·디지털전환, ESG·지속가능경영,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 등 기업 수요 기반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선정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5천만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간담회에서는 기업별 수출 현황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는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도 함께 진행됐다. 참석 기업들은 수출지원기관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한편 전북테크노파크는 내달 5일까지 '2026년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강소, 강소+' 지역자율프로그램' 참여기업을 모집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홈페이지(JBLC) 및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삼례농협, 조합원자녀 학자금 전달

삼례농협은 지난 22일 조합원 복지 증진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2026년 조합원자녀 학자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조합원 자녀 38명에게 총3천8백만원의 학자금을 전달했다.

이번 학자금 지원사업은 조합원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업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

삼례농협 강신학 조합장은 "조합원 여러분의 성원속에 미래 세대의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조합원 실의 증진과 지역사회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LX-기술보증기금 '선진감사문화' 업무협약

한국국토정보공사-기술보증기금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따른 선제적 내부 통제인 미래형 감사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21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기술보증기금은 '내부통제 강화와 AI 기반 감사역량 제고' 위한 업무협약에 체결했다.

이에 두기관은 AI기반 한 유기적 업무협력 체계를 가동한다. 더불어 데이터 기반 감사 체계 구축이 이뤄지며 예방 중심 선진 감사 문화 정착에 앞장선다. /김영태 기자

특히 양 기관은 △AI 기법을 활용한 고도화된 감사기법 공유 △공통 위험 분야별 상시모니터링 체크리스트 교차 검토 △감사 전문성 제고 위한 인력 공동구성 및 합동점검 △우수 내부통제 시스템 벤치마킹 등의 협력체계를 이룬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와 관련해 기술보증기금과의 축적 감사경험을 적극 공유해 AI 활용한 미래형 감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전문건설협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도모

전시컨벤션센터 공사 현장 찾아 협조 요청

'전주시'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임근홍)'가 지난 21일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공사현장'을 찾아 롯데건설(주)를 비롯한 시공 건설사에 지

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전주시에서는 변동현 건축과장을 비롯해 지역건설지원팀과 컨벤션시설팀이 참석했으며 시공사인 롯데건설(주), (주)삼부종합건설, (주)부강건설, (주)동일종합건설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가 함께했다.

전주시는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대규모 건설공사만큼 지역 우수 전문건설업체를 협력업체로 등록, 지역 제한입찰 등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줄 것과 지역의 자재·장비의 우선 사용 등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전주시 변동현 건축과장은

"전주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건립하는 이번 사업에 지역 건설업체가 함께 힘을 보태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협조를 구했다.

또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과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당부했다. /정소민 기자

건강관리협회, 초등학생 금연 글짓기·그림 입상자 발표

KH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와 소년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보건복지부가 후원한 '제31회 초등학생 금연 글짓기·그림 공모전'의 최종 입상자를 지난 20일 발표했다.

'나도 건강하게! 지구도 건강하게!' 함께 건강'약속!'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에서 총 12,541편(글짓기 5,823편, 그림 6,718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참가 학생들은 금연을 비롯해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건강 지키기, 규칙적인 운동, 올바른 식습관, 긍정적인 마음과 감정 가꾸기 물론, 플로깅과 재활용을 통한 환경 보호까지 몸과 마음, 지구의 건강을 아우르는 다양한 실천 방안을 개성 있게 담았다.

영예의 대상(교육부 장관상)은 글짓기 부문 구미 원남초등학교 6학년 구민경

학생이 차지했다.

그림 부문 대상(보건복지부장관상)은 양산 기양초등학교 4학년 문재현 학생에게 돌아갔다.

금상은 글짓기 부문에 세종 세종초 3학년 박하은·사천 사남초 6학년 최정인 학생이, 그림 부문에 김해 진영중앙초 2학년 이하늬·남양주 은솔초 5학년 김서윤 학생이 각각 수상했다.

은상은 서울 휘봉초 4학년 곡시현 학생과 순천 동산초 1학년 김지을 학생을 비롯해 각 부문별 5명씩 총 10명이 선정됐다.

이밖에도 동상 24명(부문별 12명),佳作 40명(부문별 20명), 장려상 100명(부문별 50명), 입선 320명(부문별 160명) 등 총 500명 입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가장 많은 작품을 출품하고 다수의 수상자를 배출한 서울 대광초등학교(교장

이현숙)에는 100만원 상당의 어린이 도서가 부상으로 수여된다.

심사는 전병호 전 한국동시문학회 회장, 함영연 한국아동문학인협회 부이사장, 권준범 서울초등미술교과연구회 회장(서울 변동초등학교 교장), 이영기 서울초등미술교과연구회 교무(서울 원목초등학교 교장), 소년한국일보 서원국 편집인, 건협 승인국 사업관리차장과 강순자 홍보과장 등 7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했다.

한편 입상자 시상식은 5월 중 서울 강서구 소재 한국건강관리협회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과 초대 대상자는 개별 안내되며, 상장과 부상은 해당 학교로 직접 발송된다.

전체 수상자 명단은 한국건강관리협회(www.kahp.or.kr)와 소년한국일보



<사진=한국건강관리협회>

(www.kidshankook.kr)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전북은행미술관 '유럽 명화전' 개막식 개최

JB금융그룹 전북은행 후원 '당신이 보지 못한 유럽 명화전' 특별 기획전 '당신이 보지 못한 유럽 명화전' 개막식이 개최됐다.

'당신이 보지 못한 유럽 명화전' 개막식에는 전북지역 미술작가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 예술가들과 전북은행미술관의 운영 방향 및 미래 비전 공유 교류의 장이 이어졌다.

전북은행미술관은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전시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근대의 흔적을 간직한 도시 군산에서 유럽 근대미술의 흐름과 현대미술의 태동을 조망하고자 마련됐다. /김영태 기자

특히 한국 근대미술가들에게도 큰 영감을 준 파리 중심의 유럽 미술사를 통해 '시각의 혁신'과 '사유의 전환'을 관객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전시에서는 20세기 현대미술의 흐름을 바꾼 유럽 거장 12인의 진품 작품 22점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참여 작가는 색채의 시인 마르크 샤갈, 입체주의의 선구자 파블로 피카소와 조르주 브라크, 야수파의 거장 모리스 드 블라맹크, 종교화의 거장 조르주 루오, 동서양의 미감을 통합한 스구하루 후지타 등이다.

한편 이번 전시는 전북은행미술관이 선보이는 두 번째 기획전이다.

/김영태 기자

이남호 측, '천호성 언론 유착' 녹취 공개

금전 요구 및 송금 논의 담겨... 천 후보 '거짓말' 반박 무색

전북교육감 선거 이남호 후보 측이 제기했던 '천호성 후보 측 언론 유착 의혹' 관련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남호 캠프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 A씨와 천 후보 캠프 관계자 B씨 간의 구체적인 금전 거래 논의가 담겼다. 녹취에 따르면 A씨가 "팸플릿 제작과 현수막 제작 등의 명목으로 100만 원을 해줘야 한다"고 요구하자, B씨는 "최소한 50만 원 정도만 해주면 된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B씨는 "계좌번호를 주면 바로 (50만 원을) 처리하겠다"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앞서 이남호 캠프 측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해당 녹취의 존재를 언급하며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천 후보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새빨간 거짓말이자 코미디에 불과한 몰타기"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천 후보 측이 결백을 주장한 지 하루 만에 실제 금전 송금을 논의한 정황이 담긴 음성 파일이 공개됨에 따라, 전북교육감 선거는 양측 모두 '언론인 금품 거래' 의혹에 휩싸이게 됐다. 해당 녹취와 관련해 천 후보 측이 어떤 추가 해명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린다. /최성민 기자



지난 21일 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 캠프 이경한 공동선대위원장(왼쪽)이 전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천호성 후보의 언론 매수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 모습

전북대 '제13회 동남아언어캠프' 개최

28일까지 접수

전북대학교 동남아연구소는 부산외국어대학교 특수외국어사업단과 공동으로 '제13회 동남아언어캠프'를 개최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내달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약 2주간 부산외대에서 합숙하는 집체형 교육 방식으로 진행된다. 운영 강사는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필리핀어 등 동남아 4개 언어와 아랍어, 이탈리아어 등 총 6개 특수외국어다. 학생들은 단기간 집중적인 언어

강좌와 함께 동남아 지역 전문가 초청 특강을 수강하며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학습한다. 캠프 참가 학생에게는 기숙사와 식사, 교재 등 교육비 전액이 무료로 지원된다. 전제성 전북대 동남아연구소장은 "단순한 어학 교육을 넘어 지역 이해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실질적 교육 플랫폼"이라며 "대학 간 협력을 통해 특수외국어 교육의 저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캠프 참가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전북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최성민 기자

군산 개복동, 야외갤러리로 변신... 원도심 재생 시도

외벽 활용 전시 선봬... 문화예술 거리로 재도약

과거 군산 영화와 문화의 중심지였던 개복동 거리가 원도심 공동화로 한동안 활력을 잃었으나, 감각적인 야외갤러리로 새롭게 탈바꿈하며 트렌디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거듭났다. 군산문화관광재단은 침체된 개복동 거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군산 시민예술촌 외벽을 활용한 야외갤러리 전시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낡고 빛바랜 원도심의 풍경(Old)과 감각적이고 신선한 현대예술(New)을 접목해 개복동을 군산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거리로 재생하고자 기획됐다. 개복동은 과거 극장가가 밀집해 군산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문화의 중심지였

으나, 도심 확장과 인구 유출로 점차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든 지역이다. 재단은 이러한 원도심 공동화 문제를 문화예술로 극복하고자 미술관이라는 제한된 공간을 넘어 거리를 전시 공간으로 확장하는 '예술로 거리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는 개복동 골목길과 시민예술촌 외벽은 그 자체로 하나의 캔버스가 돼 방문객들에게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두 달마다 작품을 교체하는 팝업 형식으로 운영되며, 올해 총 네 차례의 릴레이 전시를 통해 거리 곳곳에 새로운 예술적 감각을 더할 계획이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야외갤러리 전시를 통해 개복동이 과거의 기억이 머무는 공간을 넘어,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매력



작인 문화예술 거리로 다시 활기를 되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복동의 새로운 변화를 알리는 첫 번째 팝업 전시는 오혜은 작가의 '건물 사이에 들어찬 빛'으로, 오는 7월 16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된다. <사진=군산시> 개복동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전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어린이공연장 '명랑하녀' 공연

군산어린이공연장은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린이오페라 '명랑하녀'를 오는 31일 오후 2시와 4시, 총 2회 선보인다. 오페라 '명랑하녀'는 유쾌하고 재치 있는 하녀 '세르피나'와 무뚝뚝하지만 속정 깊은 주인 '우베르토'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사랑과 관계의 변화를 흥미롭게 풀어낸 작품이다. 익살스러운 연기와 친근한 음악으로 어린이들도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 공연은 오페라 특유의 클래식한 요소에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연출을 더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오페라를 쉽

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생동감 있는 무대와 배우들의 표현력으로 관객의 몰입도를 높일 예정이다. 군산어린이공연장은 이번 공연을 통해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 향유의 장을 마련하고, 오페라 장르에 대한 친근한 접근을 돕고자 한다. 어린이오페라 '명랑하녀'는 오는 31일 오후 2시와 4시, 총 2회 공연으로 진행된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사전 예약은 지난 20일 오전 10시부터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를 통해 1인당 최대 4매까지 예매 가능하다. /군산=임근석 기자

'전북형 지역 특화 관광콘텐츠 지원 공모' 접수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전북관광사업지원센터는 지난 22일부터 내달 10일까지 '2026 전북형 지역 특화 관광콘텐츠 지원 공모'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역 고유 관광자원과 관광 현안을 반영한 체험형·경험형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관광기업과 지역 기초재단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센터가 주관하며, 전주·군산·익산·완주·순창·고창 등 전북관광사업지원협의회 소속 6개 기초 재단과 협력해 운영한다. 총 사업비는 9,500만원 규모로, 지역별 1개사 내외 등 총 8개사 안팎의 관광기업을 선정한다. 선정 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1,500만원의 사업화자금과 지역 연계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공모 분야는 지역별 관광 현안과 특성

을 반영해 구성했다. △전주는 미식 기반 체험형 관광·MICE 콘텐츠 △군산은 지역 원주민 기반 로컬 여행상품 △익산은 익산연계 치킨·문화예술 관광콘텐츠 △완주는 AI 기반 체험형 문화예술 관광코스 △순창은 지역 특화(醬) 콘텐츠 △고창은 관광지 특화 콘텐츠 개발 등을 주제로 운영한다. 접수는 내달 1일부터 10일까지 한국관광산업 포털 '투어리즈'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서류 및 발표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지역 관광 현안 해결과 관광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현장 중심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jbct.or.kr)과 관광사업지원센터(063-230-4218)로 문의하면 된다. /장정철 기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내달 무료 강좌 운영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내달 1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총 6회에 걸쳐 2026 박물관강좌 '우리들의 여가생활-근대 취미의 형성과 오늘'을 박물관 2층 규장각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근대 이후 우리 사회에서 술, 스포츠, 사진, 영화, 관광, 만화 등 다양한 여가와 취미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일제강점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가생활이 개인의 취미를 넘어 사회·문화적 흐름과 맞물려 전개된 과정을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강좌는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6월에는 일제강점기 술과 음주문화, 7월에는 근대 스포츠의 수용과 확산, 8월에는 사진으로 기록된 한국인의 삶을 다룬다. 이어 9월에는 식민지 조선의 영

화 문화, 10월에는 한국 근대 관광의 형성과 변화를 살펴보고, 11월에는 '군산을 만화로 그린다'는 주제로 지역과 만화 콘텐츠의 만남을 조명할 예정이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강좌를 통해 시민들이 근대 이후 형성된 다양한 여가와 취미 문화를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역사와 문화를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6 박물관강좌는 내달부터 11월까지 화차별 지정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수강료는 무료다. 성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회당 정원은 선착순 40명이다. 참가 신청은 박물관관리과(063-454-7876)로 전화 접수하면 된다. /군산=임근석 기자

도로 위 근절 5대 반칙 운전!

새치기(불법) 유턴

유턴구역에서 후방차량이 선행차량보다 먼저 유턴시 위반

버스전용 차선위반

이용불가 자동차가 전용차로 불법 이용시 위반

포리물기 금지 위반

교차로 내 정체시 진입금지 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정지 서행구간 끼어들기 금지 위반

비긴급구급차 법규 위반

허위 환자를 태우고 사이렌 울리면 위반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한 전략 및 방안 논의

군산시는 지난 21일 지역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김영민 부시장이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했으며,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해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2026년 추진 전략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군산시는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업체 보호 및 참여 확대 △민관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건설업 활성화 △부실 건설사업체의 지속 관리를 통한 경쟁력 강화 △불공정 하도급의 지속적 지도·점검을 통한 공정거래 질서확립 등 4대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중동전등 대외적 요인으로 지역 건설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위원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신규 농업인 1:1 멘토링 '호응'... 8월까지 진행

정읍시가 초보 귀농인의 성공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선도 농가와 1대1로 연결하는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을 오는 8월까지 5개월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영농 경험이 풍부한 기존 농가와 이제 막 농업에 뛰어들 귀농 연수생을 짝지어 주는 맞춤형 지도(멘토링) 과정이다. 귀농인들이 겪을 수 있는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단순한 이론 학습에서 벗어나 실제 농업 현장에서 작물별 재배 기술과 농가 경영 방식 등을 직접 체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월 교육에 참여할 5개조를 최종 선발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영농 적응을 돕기 위한 재정적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기술을 전수하는 선도 농가에는 매월 최대 40만원의 지급한다. 현장 실습에 참여하는 귀농 연수생에게도 월별로 최대 80만원의 교육 훈련비를 제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농촌지원과 관계자는 "귀농 연수생들이 선배 농가의 재배 기술과 관리 비결을 익혀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하고 소득을 높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9월까지 폭염 속 만성질환 노인 '밀착 돌봄'

익산시가 올여름 극심한 폭염과 열대야가 예상됨에 따라, 건강 취약계층 노인을 지키기 위한 촘촘한 보건 안전망 가동에 나섰다.

익산시 보건소는 오는 9월까지 고혈압과 당뇨 등 보건소에 등록된 만성질환자와 홀몸 고령자를 대상으로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낮 시간대 폭염특보는 물론,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주의보 발령 시에도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한다.

보건소 전문 인력들이 가정 방문과 안부 전화, 사물인터넷(IoT) 모니터링을 총동원해 열악·열당 등 기초 건강 상태를 수시로 살필 계획이다.

특히 열대야가 발생하면 일반인보다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만성질환 고령자는 수면장애를 겪거나 심뇌혈관 질환이 악화할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시는 질환별 맞춤형 건강관리 교육을 병행해 폭염으로 인한 2차 질환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진운 익산시 보건소장은 "폭염은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낮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무더위 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농지 전수조사 본격 추진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대상... "불법 이용 뿌리 뽑는다"

정읍시가 농지 투기와 불법 임대차를 막기 위해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1996년 이후 사들인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벌인다.

이번 조사는 밭이나 논을 농업 외 다른 목적으로 쓰거나 불법으로 빌려주는 등의 농지법 위반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건전한 농지 이용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유 관계 확인을 비롯해 실경작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불법 임대차, 무단 전용, 불법 시설물 설치, 장기 휴경 여부 등이다.

조사는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6월부터 7월까지 농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대조하는 기본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소유 관계와 실경작, 휴경 여부를 중점적으로 파악한다.

이어 8월부터 12월까지 현장을 직접 살펴보는 심층조사를 거친다. 기본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지와 법령상 필수 조사 대상을 현장 방문해 실제 경작 상황과 시설물의 운영 용도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보완 조사도 진행한다.

원활한 점검을 위해 읍·면·동 소속 담당 공무원과 신규 채용한 조사원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이들은 농업경

영체 등록 자료와 항공 사진 등을 활용해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고 현장 확인을 병행한다.

시는 조사 결과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땅을 소유하거나 농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를 적발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이나 처분 의무 부과 등 단호한 행정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은 무단 전용이나 불법 임대차, 농지 방치 등 농지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실제 경작 중심의 농지 관리 체계를 단단히 굳히고 농지 투기와 불법 이용을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 추진

"시민 부담 덜다"...

자동이체 시 추가 혜택

익산시가 경제적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해 하수도 사용료 감면액이 총 8억 4,0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2024년 보다 약 1억 6,000만 원

증가한 규모다.

지원 대상별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가구에 매월 가정용 10㎡에 해당하는 하수도 요금을 감면하고 있다.

또 다자녀 가구에는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까지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동이체 할인 제도도 운영 중이다.

하수도 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요금의 1%를 추가 할인받을 수 있으며 할인 한도는 최대 5,000원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와 물 사용량이 많은 다자녀 가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직 감면 혜택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익산시 상수도사업단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외국어 통역봉사자 47명 위촉

국제행사·해외교류 및 외국인 주민 소통 지원

군산시는 지난 19일 시청에서 제7기 군산시 외국어 통역봉사자 위촉식을 개최하고, 앞으로 2년간 활동할 통역봉사자 47명을 공식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군산시의 국제행사와 해외교류, 외국인 주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제6기 봉사자 가운데 활동 연장을 희망한 인원은 서류 심사를 통해 재 위촉됐으며, 신규 지원자는 서류 및 대면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됐다.

최종 선발된 봉사자는 군산 시민 47명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스페인어·몽골어·러시아어 등 다양한 언어에 능통한 시민들로 구성됐다.

이 밖에도 프랑스어와 튀르키예어 등 기타 언어 통역이 가능한 인재들이 함께 참여해 보다 폭넓은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정회상 군산시 국제관계명예대사가 '국제 매너와 보다 더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해 봉사자들의 국제적 소양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위촉된 제7기 외국어 통역봉사자들은 앞으로 2년간 군산시가 주관하는 국



지난 19일 개최된 제7기 군산시 외국어 통역봉사자 위촉식 <사진=군산시>

제행사와 해외 교류, 기업체 비즈니스 통역, 외국인 주민의 언어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김영민 부시장은 "외국어 통역봉사는 단순한 언어 전달을 넘어 문화와 문화,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잇는 뜻깊은 봉사"라며 "군산시의 외국인 주민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2013년부터 외국어 통역봉사서비스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26년 5월 현재까지 총 261회 행사에서 누적 490명의 통역봉사자가 활동했다.

현재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비롯해 베트남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튀르키예어 등 총 10개 언어에 대한 통역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군산시는 증가하는 다양한 언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 네팔어 등 기타 언어 능력자를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통역봉사서비스가 필요한 기관이나 기업, 단체는 군산시 공보협력과 교류협력계(☎063-454-2624)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영경귀 텃밭문화축제 개최

내달 6일 열려... 26일까지 요리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정읍시가 영경귀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내달 6일 산외면 고택문화체험관에서 '제10주년 영경귀 텃밭문화축제'를 열고, 이에 앞서 이달 26일까지 요리 경연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수향자연식생활문화원(대표 김현희)이 주관한다.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다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 체험의 장으로 꾸며진다. 이를 통해 영경귀가 지닌 우수성과 활용 가

치를 널리 알리는 데 목적을 뒀다.

행사는 축제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어진다. 다채로운 문화 공연을 시작으로 영경귀의 매력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각종 체험 활동이 펼쳐진다. 축제의 핵심 순서인 요리 경연 대회는 현재 참가자를 기다리고 있다. 영경귀를 재료로 삼은 창의적이면서도 건강한 요리가 주제다.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도전을 희망하는 시민은 26일까지 수향자연식생활문화원으로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사진=정읍시>

김재선 정읍시장 후보, 무소속 연대 선언

의지 불태우며 삭발 강행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각 지역에서 무소속 후보들의 연대 선언과 협약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김재선 무소속 후보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메이저 정당의 불공정 경선 규탄 및 정책공유, 공동유세 등을 통해 거대 조직에 맞서 강력한 무소속 연대를 선언했다.

이날 김재선 무소속 정읍시장 후보는 "예, 경제, 정치 두 날개가 있는 경제불도저 정읍시장 김재선인가?, 기업경영 35년 정당 경력 45년을 토대로 한 경제 경영, 정치의 두 날개가 있고, 역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등과의 인맥을 갖춘 경제 불도저 김재선" 특히 이날 김재선 무소속 정읍시장 후보는 회견 서두에 전북권

역 무소속 후보들을 향해 '무제한 선거연대'를 전격 제안했다.

김재선 무소속 정읍시장 후보는 "이번 선거는 불공정, 부정의한 정치인에게 경종을 울리고, 정읍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위대한 시민의 승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재선 무소속 정읍시장 후보는 "특정 세력이나 정치인이 주인이 되는 도시가 아닌, 오직 시민이 주인이 되는 정읍시를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정당이 아닌 사람이 이기는 선거를 통해 정당당당하게 시민들의 선택을 받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지난 22일 정읍선거관리위원회에서 김재선 무소속 정읍시장 후보는, 부당한 선거방해 세력에 맞서는 '결연한 저항'과 '배수의 진'을 치겠다는 결단과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담아 삭발식을 강행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사진=익산시>

익산시, 내달 '마음 안심-기억 튼튼' 교실 연다

내달 15일~7월 20일까지

익산시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외로움을 달래고 치매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뇌 활력 깨우기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인지기능 향상 및 치매 예방을 위한 '마음 안심, 기억 튼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내달 15일부터 7월 20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진행된다. 현재 센터 방문 및 전화를 통한 선착순 접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우선 심리적 안정과 손가락 소근육 발달을 돕는 다채로운 오감 자극 수업들이 마련된다. 여기에 신체 활력을 깨우는 웃음치료와 스트레스를 날려줄 음악 활동이 더해져 웃음꽃을 선사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의 전문성도 한층 강화했다.

강령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특별 초청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치매 예방 생활 습관 교육을 진행한다.

이진운 익산시 보건소장은 "어르신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기억력을 튼튼하게 다지는 것은 물론, 이웃들과 따뜻하게 소통하며 활기차고 건강한 일상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농민 공익수당 신청' 29일 마감

정읍시가 총 77억원 규모의 농민 공익수당 신청을 오는 29일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를 끝으로 마감한다. 이 사업은 농업과 농촌이 지닌 공익 가치를 보전해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전체 사업비는 77억원 규모로 시비 60%, 도비 40%로 구성됐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도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농민이다.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도내 1000㎡ 이상 농지를 경작해야 조건을 충족한다. 양봉 농가의 경우 2026년 1

월 1일 기준으로 도내에 등록된 꿀벌을 일정 규모 이상 사육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경영체 규모에 따라 다르게 산정된다. 1인 경영체는 60만원 받으며, 2인 이상 경영체부터는 구성원 한 명당 30만원씩 책정돼 3인 경영체라면 총 9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시는 접수 절차가 끝나면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 요건 검증과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 이어 8월에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다가오는 추석 전인 9월 중 정읍시농산물품으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철길 꽃길 조성

군산시는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로컬푸드 복합센터 도로 건너편 철길 구간에 꽃길을 조성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쾌적한 경관 공간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꽃길은 철길마을 구간 중 구암초등학교 주변 철길을 중심으로 조성됐다.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보행환경과 녹지 공간을 제공하고, 관광객들은 맨드라미와 코스모스 등 화려한 꽃

길을 따라 걸으며 휴식과 여유를 즐길 수 있다.

이창한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은 "꽃길을 따라 이어지는 꽃길은 관광객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고, 지역 농업인들에게는 판로 확대의 기회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꽃길 정비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고창군, 합동평가 성과 달성 '총력'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추진상황 보고회... 점검 및 향상 방안 논의

고창군이 올해 정부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최우수 성과를 거두기 위한 본격적인 추진 체계 가동에 나섰다.

군은 지난 20일 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 주재로 '2026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자체교육 및 정량지표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전 분야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보고회에는 62개 합동평가 정량지표 담당직장과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2026년 실적 합동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은 목표로 지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실적향상 방안을 마련에 중점을 뒀다.

특히 구매물 지표 등 부서 간 협업을



지난 20일 열린 고창군 '지자체 합동평가 추진상황 보고회' <사진=고창군>

필요한 지표에 대해서는 전 부서의 적극적인 공동 대응을 당부했다.

김영식 권한대행은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은 고창군의 행정 역량을 대외적으로 증명하는 가장 객관적인 잣대이자 군

민과의 소중한 약속이다"며, "모든 부서가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상반기부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실적 관리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 '속도'

병목구간 등 사업 추진

김제시가 국도 내 위험도로와 병목지점 개선을 위한 국가계획 반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교통 안전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최근 전북특별자치도와 국토교통부의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8단계) 기본계획(2028~2032)' 수립에 맞춰 지역 주요 사업을 발굴하고 국가계획 반영 논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응은 교통사고 위험구간 해소와 만성 정체구간 개선을 통해 시민 안전과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정부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 국비 확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시는 총 4개 국도 노선, 6개 사업을 중점 건의사업으로 발굴했다. 사업 규모는 약 100억원 규모로, 위험도로 개선사업 3개소와 병목지점 개선사업 3개소로 구성됐다.

시는 이번 사업들이 반영될 경우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물류 이동성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도 위험도로와 병목구간 개선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교통 인프라 사업"이라며 "정부 기본계획에 김제시 주요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긴밀히 협력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바다의 날 기념 민관 합동 해양쓰레기 정화활동

부안군은 제31회 바다의 날(5월 31일)을 맞아 해양환경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지역 사회와 깨끗한 바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2일 변산면 격포항 일원에서 대규모 해양 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안군과 부안해양경찰서가 공동 주관했으며, 부안수협과 유관기관, 어업인,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참가자들은 두 개 조로 나뉘어 격포항 주변 해안가에 방치된 폐플라스틱, 페이퍼, 부표, 스티로폼 등 각종 해양쓰레기를 집중 수거했으며, 이번 정화활동을 통해 약 2톤의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화영 부안군수 권한대행은 "해양환경 보전은 민과 관이 함께할 때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 마련과 홍보 활동에도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다의 날(5월 31일)은 해양의 중요성과 보전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1996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됐으며, 매년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해양 관련 행사가 열리고 있다. 부안군은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해 사람과 바다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부안=온봉기 기자

고창식품산업연구 '광주식품대전' 참가

김치산업 적극홍보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이 '2026년 고창맛추첨 김치소재 6차산업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1~24일까지 열리는 '광주식품대전'에 참가했다.

연구원은 고창군 김치 가공업체인 오베이골농원 (이영희 대표)와 함께 참가해, 고창군 지역의 우수한 김치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김치 제품을 선보이고 현장 시식 및 판촉 활동을 전개해 소비자들을 만났다.

더불어, 용두마을작목반 (강부덕 대표), 행복한농농조합법인 (이행만 대

표) 등 지역 업체들의 김치 소재의 우수성을 한자리에 모여 홍보했다.

이와 함께 광주식품대전에서 마련한 유통상담회에 참가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홈쇼핑 등 다양한 유통채널 진출을 모색했다.

박생기 원장은 "고창 유네스코 청정 지역에서 생산된 김치 소재는 건강과 맛을 겸비한 우수한 식품자원이다"며 "지역 농·가공업체·유통업체가 협력할 수 있는 장을 꾸준히 마련해 지속 가능한 신사업 모델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사진=김제시>

김제시, 예쁜간판꾸미기 사업 주민설명회

김제시는 지난 21일 보건소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김제시 동서9길~동현4길 예쁜간판꾸미기 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구간을 방문해 현장방문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제시 동서9길(금남사거리) ~ 동현4길(성산공원) 예쁜간판꾸미기 사업은 업소 특성과 지역성을 살린 간판개선을 통해 구도심 상권 활성화 및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금번 주민설명회에서는 사업구간 일원의 업소주, 건물주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참

석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진행된 현장 방문 컨설팅에서는 업소별 특성과 지역 분위기를 반영한 간판 디자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설명회와 현장컨설팅을 통해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할 수 있었다"며, "지역 특색을 살린 아름다운 간판 디자인을 반영해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구도심 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자봉센터, 우수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운영

고창군자원봉사센터가 2026 우수자원봉사자 견학 및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우수 자원봉사자 50명과 센터 임직원 등 총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원봉사자 간 교류와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관내 꽃정원과 모양성 등 지역 명소를 탐방하며, 자원봉사자 간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함께 체험하며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역 내 관광객과

연계해 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양한 교류 활동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봉사 참여를 독려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김옥 고창군자원봉사센터 이사장(김옥)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분들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자원봉사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전원 합격

초·중·고졸 검정고시 응시자 9명 전원 합격

김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26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에서 응시한 학교 밖 청소년 9명 전원이 합격하는 뜻깊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합격은 김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지평선학당과 연계해 운영한 검정고시 대비반을 통해 이뤄진 결과로 청소년들의 꾸준한 노력과 열정, 그리고

리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함께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다.

센터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약 7주간 검정고시 대비반을 운영하며 국·영·어·수학 등 주요 과목에 대한 대면수업과 학습지원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대비반은 지평선학당과의 연계를 통해 전문 강사진이 함께 참여하며 청소년 개개인의 수준에 맞춘 수업과 학습관리가 이뤄졌고, EBS 온라인 강의 연계 및 학습상담 등 맞춤형 지원도 함께 제공됐다.

시험을 앞둔 시기에는 응원과 격려 속에서 도시락 지원과 시험장 인솔까지 이어지며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이 이뤄졌다.

이유미 센터장은 "학교 밖이라는 이유로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노력해 준 청소년들이 정말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들의 배움과 성장,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지속적으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박지원 의원, 박지원 후보 지원유세 나서

"박 후보는 민주당 미래 이끌 핵심 정치자산"

정치9단, 영원한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유명한 박지원 국회의원(6선, 전남 해남·완도·진도)이 지난 22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군산·김제·부안)를 지원유세에 나섰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14일 박지원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기로 한 데 이어, 직접 박 후보 지원유세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지원 의원은 김제 전통시장 유세를 시작으로 박지원 후보 지원에 나서며, 김제·부안·군산 승리를 위한 민주당 원팀 결집을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유세에서 "박지원 후보는 민주당 최초 평당원 출신 최고위원으로, 지난 8개월 동안 지도부 안에서 균형 잡힌 판단, 흔들림 없는 팀플레이를 보여준 사람"이라며, "짧지만 정치적 감각과 정무적 판단력이 뛰어나고, 민주당의 미래를 이끌 핵심 정치자산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박 의원은 "박 후보는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의 길을 걷고 있다"라며 "이번에 당선시켜 크게 성장시켜 주시고, 전북 최초의 대통령으로 키워달라"라고 활짝 웃으며 덕담을 했다.



<사진=박지원 후보 사무실>

또한 박 의원은 "박지원 후보는 김제·부안·군산 발전을 이끌 준비된 일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며 "꼭 잘 키워서, 지역과 민주당을 위해 마음껏 부리시고, 박지원 후보가 민주당과 전북, 나아가 대한민국의 큰 인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강하게 지지를 당부했다.

박지원 후보는 이에 대해 "박지원 의원은 영원한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치 발전에 큰 획을 그으신 정치계의 큰 어른"이라며 "후원회장을 맡아주시는 것도 모자라 직접 유세 지원까지 나서주시는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후보는 "박지원 의원의 성

원을 무겁게 받아, 중앙에서 쌓은 경험과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오직 김제·부안·군산 발전을 위한 도구가 되겠다"라며, "민주당 원팀 승리로 이זה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고, 김제·부안·군산과 새만금이 전북 대전환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지원 의원은 이날 김제 전통시장 지원유세를 시작으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지지와 전북 민주당 원팀 승리를 위한 집중 지원 일정에 나섰다.

/장정철 기자

부안군, 복지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백산녹두꽃사회적협동조합사회복지관, 협약

부안 백산녹두꽃사회적협동조합은 부안종합사회복지관과 지난 21일 백산면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6년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내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양 기관은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지역주민 중심의 돌봄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저소득층 반찬지원 대상자 발굴 및 반찬배달 자원봉사 활동 △백산면 내 복지 사각지대 및 취약계층 발굴과 서비스 연계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정보 및 지식 공유 △복지지원 구축 및 후원·봉사 활성화 △협력사업의 정기적인 모니터

링 및 평가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박천호 대표는 "지역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호흡하며 돌봄과 나눔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영용 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내 복지 사각지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앞으로도 지역 기관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따뜻한 지역공동체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김제=온봉기 기자

남원시장 후보 선거전 점화...3자 표심 경쟁

양총모 만인의총 참배로 시작 강동원 "공정 회복" 지지 호소 황의돈 "기득권 정치 심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 첫날인 지난 21일 남원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일제히 출정식과 거리 유세에 나서며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총모 후보는 이날 만인의총 참배를 시작으로 남원시청 앞에서 선대위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섰다. 출정식에는 박희승 국회의원과 최준근 전 남원시장, 최강욱 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 양 후보는 "시민 주권시대의 일



양총모 후보



강동원 후보



황의돈 후보

을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황의돈 후보 역시 지역 상가와 주요 거리 등을 돌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지지를 호소했다. 황

후보는 "경제시장이 되겠다"며 경제 회복과 인구 대응, 문화관광 활성화 등을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강동원 후보도 이날 남원 공설시장과 모노레일사업장 일원에서 출정식을 열고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강 후보는 "무너진 행정을 바로 세우고 상식과 공정을 회복하겠다"며 "남원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역사적 자부심

후보는 테마파크 진상 조사를 촉구하며 "무책임한 기득권 정치를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후보들은 이날 이른 아침 주요 교차로와 시장, 상가 밀집지역 등을 돌며 출근길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으며, 선거운동원들의 울동과 유세차량 홍보 전도 이어졌다.

/남원=김종원 기자

남원시 여성 미니채용·창업박람회 구직 '열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개최 기업 현장 면접·컨설팅 제공

남원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난 22일 평생학습관 별관에서 여성 구직자 및 직업교육 훈련생을 대상으로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새일 미니채용·창업 박람회를 개최했다.

"다시 일하는 기쁨"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박람회는 여성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일자리 정보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채용면접관, 컨설팅관 및 부대행사를 운영했다.

채용면접관에서는 서남주간보호센터 외 지역 내 우수 기업 4개 업체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1:1 심층 면접을 진행해 구직 열기를 이어갔다. 이 외에도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21개 기업체의 상세한 구인 정보를 담은 채용 게시판이 운영돼 구직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사진=남원시>

컨설팅관에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남원시 기업정책과 일자리리터, 퀵스타트 사업단이 참여해 맞춤형 취업 지원서비스와 면접수당 제도 안내는 물론, 타 세일센터와 협업체 경력단절예방 공동 캠페인을 비롯해 창업 탐색 및 컨설팅, 전문 노무 상담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구직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한층 높였다.

부대행사로는 지문 인식 진로·적성검사와 무료 증명사진 촬영, 취업 타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남원=김종원 기자

완주군, 세계 금연의 날 맞아 금연 퀴즈·걷기 챌린지 진행

완주군이 제39회 세계 금연의 날(5월31일)을 맞아 지역 사회 금연 분위기 조성하고 건강 생활 실천 확산을 위해 '금연 퀴즈 및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

지난 18일부터 오는 6월 7일까지 3주간 진행되는 이번 챌린지는 완주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군민은 금연 퀴즈 정보QR코드(QR코드)를 통해 관련 문제를 풀고, 이동통신(M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설치한 뒤 완주군 공식 커뮤니티에서 금연의 날 걷기 챌린지에 참여하면 된다.

걷기 도전은 거주지나 활동 지역이 완주군인 주민으로 제한하며, 기간 내 총 10만보 걷기를 목표로 삼았다. 다만 무리한 운동을 방지하고자 하루 최대 인정 걸음 수는 1만 보로 제한한다.

또한 완주군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내용도 함께 알릴 계획이다. 퀴즈 정답과 걷기 목표를 모두 달성한 참여자에게는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완주우체국과 한국전력간접공사 등 관내 공공기관에서 금연 캠페인을 전개하고, 완주군 공식 SNS 등을 활용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유미숙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수 선거전 본선...최영일·오은미 출정식

현역 프리미엄vs민생 중심 변화 복지·기본소득 공약 본격 경쟁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21일 순창군수 선거에 출마한 최영일 후보와 오은미 후보가 각각 출정식을 갖고 거리 유세에 나서며 본격적인 표심 공략에 돌입했다.

최영일 후보는 이날 순창읍 중앙로에서 민주당 원팀 출정식을 갖고 거리 유세를 펼치며 "검증된 균형 경험으로 순창 발전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은미 후보는 순창읍 전통시장 앞에서 출정식을 진행하고 이날 장터와 터미널 사거리 등을 돌며 "민생을 중심으로 순창 100년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최영일 후보



오은미 후보

진보당 오은미 후보는 "순창 첫 여성군수"를 내세우며 변화와 민생 중심 군정을 강조하고 있다. 오 후보는 아동수당 50만원, 농민수당 30만원, 군민 기본소득 30만원 등을 핵심으로 한 '5·3·3 민생 혁명 정책'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부모 출산지원금 1억 원·아이 자립펀드 1억 원, 중·장년층 5천만 원 목돈마련 펀드 지원, 경로당 무상급식 확대와 군내버스 완전 공영화 등을 공약으로 복지 강화를 약속했다.

양측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오 후보 측은 현 군정의 토목 중심 예산 운영에 의혹을 제기하며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후보는 출정식에서 "선거에 있어 상대방 비방은 필패"라고 밝혔.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2027년 유기질비료 신청 시작

온라인·방문 접수 병행 운영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지원

완주군이 오는 6월부터 '202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새로 온라인 신청이 개설돼 농업인의 신청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으로는 6월 1일부터 10일까지 누리집 '농업인(e)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6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유기질비료 공급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이며 신청서에 희망하는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와 신청물량 등을 작성해 농지소재지 관할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농지가 여러 시·군에 있는 경우 각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하며, 농지가 같은 군 내에 2개 이상 읍·면에 있는 경우 그중 하나의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 비료는 총 5종으로 유기질비료(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 복합비료) 3종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이며, 1포(20kg)당 유기질비료는 1,6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1,300~1,600원이 지원된다. 접수 마감 후 신청인의 희망 수요량을 예산 범위 내에서 배정해 2027년 공급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보건소, 통합건강증진 4년 연속 '최우수'

복지부 평가 통합사업 성과 인정 AI-IoT 어르신 건강관리도 '우수'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4년 연속 통합 건강증진사업 종합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 추진결과 및 우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진행됐으며, 표창은 오는 6월 30일 개최되는 제18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수여될 예정이다.

남원시보건소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연속 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 부문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특히 올해는 중점 추진 사업 영

역인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부문에서도 우수기관 표창을 거머쥐며 뜻깊은 '2관왕'의 쾌거를 안았다.

남원시보건소는 사업 계획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정기적인 중간 모니터링과 환류 체계를 구축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보건소 내·외부 자원 간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남원시보건소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연속 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 부문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특히 올해는 중점 추진 사업 영

아울러 남원시체육회,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등과 협력해 걷기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참여도를 높였으며, 통합돌봄과 가족센터와의 연계 등을 통해 건강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중심 통합건강관리 체계 구축에 힘써왔다.

특히 지역의 취약 건강지표인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과 '걷기 실천율'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 결과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과 걷기 실천율을 각각 4.8%p, 2.5%p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용재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순창군, 폭염 대비 취약층 방문건강관리 본격화

9월까지 모니터링 등 집중 관리 경로당 중심 폭염 예방 활동

순창군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집중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여름철 폭염이 장기간·고강도화되면서 온열질환 등 건강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순창군은 방문건강관리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대상 가정을 직접 찾아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폭염 대응 행동요령과 건강관리 수칙을 안내하는 등 선제적인 건강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전화 안부 확인과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

해 건강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하고, 어지럼증과 탈수 증상 등 건강 이상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원한 환경 유지 △충분한 수분 섭취 △낮 시간대 외출 자제 △기온 수시 확인 △무더위 워터 이용 등 폭염 대응 행동요령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건강관리 수칙과 온열질환 예방교육도 진행한다. 교육에는 온열질환 증상과 함께 증상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119 신고가 필요한 상황 등 실제 상황에 도움이 되는 대응 요령 등이 포함된다.

순창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우석대, 지역 청년·대학생 지원 '맞손'

청년센터-학생상담센터 협약 지역 청년 프로그램 공동 운영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와 우석대학교 학생상담센터가 대학생과 지역 청년들을 위한 지원 협력 체계 구축 및 건강한 청년 문화 조성을 위해 최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과 교류를 바탕으로 대학생과 지역 청년들의 성장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청년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자 마련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 사업 기획 및 추진 △대학생 및 지역 청년 대상 프로그램 공동 운영 △기관 사업 홍보 및 지역사회 정보 공유 △청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청년 세대의 다양한 고민과 사



<사진=완주군>

회 진입 과정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양 기관은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연결되는 청년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노력할 계획이다.

최형욱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장은

"청년들이 지역 안에서 다양한 경험과 관계를 형성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학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합동 위생점검

여름철 식중독 예방 지도 병행

남원시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의 하나로 위생 및 보육 부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고, 오는 29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의 급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내 모든 어린이집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걸쳐 전수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조리장 등 급식 시설의 청결 상태 및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소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보관 여부 △보존식 관리(매회 1인분 분량, 영하 18℃ 이하에서 144

시간 이상)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시는 점검 기간 중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김치 등 주요 조리식품을 직접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병행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과 함께 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 점검과 더불어 대량 조리 시 주의사항과 올바른 식기류 세척·소독 방법 등 실무 위주의 식중독 예방 교육과 홍보를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고온 다습한 여름철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환경인 만큼 급식 종사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완주소방서 "더 안전한 완주" 인명구조사 취득 맹훈련

완주소방서(서장 이주상)는 인명구조사 1·2급 자격 취득을 위해 연일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인명구조사 2급 시험은 19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며, 완주소방서에서는 소방교 김결, 소방사 서태양이 응시한다.

이어 오는 27일 실시되는 인명구조사 1급 시험에는 소방교 서재민이 도전한다. 인명구조사는 각종 재난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 자격으로 강한 체력과 구조기술, 정신력을 모두 요구하는 만큼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이 필수다.

응시 대원들은 로프 구조, 장애물 극복, 수난구조 등 실전형 훈련을 반복하며 현장 대응 능력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더 안전한 완주를 만들기 위한 각오로 훈련에 임하고 있다.

완주소방서 관계자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원들이 흘리는 땀과 노력이 현장의 대응 능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란다"고 전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임실군, 산민 이용 선생께 공로패 전달

임실군은 지난 20일 임실군수실에서 한국 서단의 원로이자 지역 문화 발전에 헌신해 오신 산민 이용 선생께 공로패를 전달했다. 이용 선생은 높은 예술적 경지와 깊은 학덕으로 한국 서단의 사표가 되어 왔으며, 특히 임실군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40여년간 군민들의 문예활동 증진과 향토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임실군은 이번 공로패 수여를 통해 선생의 업적과 공로를 기리고, 군민을 대표하여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산민 이용선수는 "산민 이용 선생께서 보여주시는 헌신과 열정은 임실 문화의 뿌리를 더욱 깊게 하고,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큰 힘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임실군은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로패 전달은 임실군민 모두가 함께 누려온 문화적 성취를 되새기고, 앞으로의 문화 발전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 계북면지사협, 취약계층 지원 사업 논의

장수군은 계북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김재수)가 계북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2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특화사업 추진 계획과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대상자 발굴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협의체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건강관리를 위해 맞춤형 특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5월 이미움 지원사업 △6월 여름철 방방용품 지원사업 △7월 북맞이 영양삼계탕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저소득 취약계층 115명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 작가들의 특별한 굿즈전 '메이드 인 진안' 개최

진안의 예술적 감성과 손재주가 담긴 특별한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다. 진안 문화원은 지난 20일부터 내달 3일까지 진안 문화원의 집 문화홀에서 진안 작가들이 직접 제작한 굿즈전 '메이드 인 진안(Made in Jinan)'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2026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6번째 프로그램이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자신만의 독창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한 진안의 매력을 굿즈(Goods)라는 매개체를 통해 대중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전시의 핵심인 '굿즈 마켓'에서는 작가들의 정성이 깃든 다채로운 핸드메이드 제품이 판매된다. 진안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활용한 각종 생활용품을 비롯해 비누, 텀블러 가방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단순한 관람을 넘어 마음에 드는 작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어, 지역 예술가들에게는 판로 개척의 기회를, 관람객들에게는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소장품을 갖길 기회를 제공한다.

현장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한 혜택도 준비되어 있다. 50,000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기념 선물을 증정한다.

/진안=전길빈 기자

진안군, 농가 현장 밀착 지원

시설채소 현장기술지원단 운영

농가안정적인 생산 지원

진안군은 여름철 고온에 대비해 시설 토마토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농촌진흥청과 협력해 '시설채소 생육관리 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이상고온 현상이 반복되면서 시설채소 재배 농가의 세심한 관리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여름철 고온기를 앞두고 시설토마토 생육 불량, 병해충 확산, 작과 장애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원단을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관내 토마토 재배 39농가, 19.5ha 규모다.

기술지원단은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농촌진흥청(스마트팜개발과) 전문가 1명을 비롯해 진안군 원예작물팀 4명, 읍·면 상담소장 9명이 참여해 분야별 전문성과 현장 밀착 지도를 강화한다.

지원단은 생육기 토마토의 초초세 및 작과 생태 점검 △생리장애 예방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지도 △관수·환기·차광 관리 기술 △양·수분 관리 요령 등 농가별 맞춤형 기술지도도 실시할 계획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청년농업인 맞춤형 컨설팅

경영 여건·환경 분석

진안군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전문 컨설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컨설팅은 셀러드상추, 복숭아, 딸기, 포도 등을 재배하는 청년농업인 10명을 대상으로 총 7회에 걸쳐 진행된다.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가 참여해 농가별 경영 여건과 재배 환경을 분석하고, 현장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딸기 육묘, 상추 스마트팜 재배, 해썬(HACCP) 인

증, 온라인 판매 및 마케팅 등 청년농업인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컨설팅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은 물론 경영 효율화와 판로 확대까지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노급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컨설팅은 청년농업인의 현장 애로를 해결하고 경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청년농업인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구축해 경쟁력 있는 자립형 농업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한득수 후보 선대위, 전현희 위원장 합류

전현희 전 민주당 최고위원

"청렴하고 능력있는 한 후보와 임실발전 함께할 것"

한득수 임실군수 후보는 지난 22일 전현희 국회의원(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명예선대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임실군수 대통합을 위한 선대위 구성에 박차를 가했다.

한득수 대통합 선대위 측은 양영두 상임고문과 김태진 총괄선대위원장, 신대용 상임위원장을 중심축으로 경선에서 경쟁했던 후보들과의 화합과 통합에 주력하고 있다. 상대 진영의 조직들이 대거 합류해 본선거 운동에 돌입한 상태이다.

이미 12개 읍면 선대위원장 임명을 통해 선거조직을 가동하고 있으며, 임실미래발전위원회, 직능위원회 등 구성을 통해 유권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특히 이번 전현희 국회의원(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명예선대위원장으로 위촉하면서 '유능한 여당군수'로의



한득수 임실군수 후보

<사진=한득수 후보 선거사무소>

보폭을 넓혀나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임실군수 대통합 명예선대위원장을 수락한 전 의원은 "평소 한득수 후보는 청렴함을 바탕으로 축합조직을 공명정대하게 이끌어온 임실의 대표적인 리더이다"고 평가하면서 "한 후보와 함께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 임실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함께 노력해 나가

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득수 후보는 "국민권의 위원장으로 뛰어난 업적을 보여준 전 의원이 선대위에 참여해 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 "전 위원장과 함께 임실을 확실히 변화시키는 여당군수가 될 수 있도록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장수 장계면, 건강한 식생활 실천 교육 실시

조리실습 프로그램 운영

장수군 장계면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난 20일 '건강라인UP'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조리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건강한 식재료를 활용한 식단을 직접 만들고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균형 잡힌 영양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조리실습은 버섯을 활용한 '버섯크림리조토' 만들기로 진행됐으며, 참여자들은 저염 조리 방법과 건강한 식재료 활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직접 조리 참여하며 건강식 조리 과정을 체험했다.

특히 버섯의 영양학적 효능과 건강한



식재료 선택 방법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돼 참여자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으며, 일상생활 속 건강한 식습

관 실천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시간이 됐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방역기동반 발대식 개최

모기매개감염병 예방 총력

진안군은 18일 보건소 강당에서 2026년 하절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기동반 발대식 및 직무·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방역기동반원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문 낭독과 함께 본격적인 방역체계 가동을 공식화했다. 참석자들은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역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여름철 증가하는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중 방역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책임감 있는 현장 대응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차단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발대식 이후에는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과 안전교육이 이어졌다. 방역소독 장비 사용법, 약품 취급 요령, 모기 발생지 조사 및 방제 방법 등 실무 중심 교육과 함께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병행해 현장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했다.

또한 개인 보호구 착용법과 응급상황 대처 요령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힘썼다.

진안군보건소는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모기 등 위생해충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감염병 발생 시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 적상면 한마음장학회, 인재 육성 앞장

이정원 학생 등 3명에게 각 100만원 장학금 지급

무주군 적상면 한마음장학회는 지난 22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적상면 출신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훈훈함을 전했다.

적상면 한마음장학회 장학금은 부모가 적상면 출신이거나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로 학업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들을 선발해 각각 100만원씩 수여하는 것으로, 올해는 3명의 학생이 선발됐다.

학생들은 "고향에서 받는 장학금이라 더 자랑스럽고 보람이 느껴진다"라며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시

는 부모님과 고향 어르신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건강하게 생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귀식 무주군 적상면 한마음장학회 회장은 "자식들 뒷바라지하는 심정으로 지난해까지 117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라며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생들의 학업 동기를 북돋우며 자긍심을 키우는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적상면에 연고를 둔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뜻을 덧붙였다.

/무주=최희호 기자

진안군, 식품위생 집중 점검 나서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

진안군은 행락철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2026 전북자치도 양대체전' 등 대규모 행사를 대비해,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2분기 정기 위생 점검 및 현장 지도를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39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전국 각지에서 선수단과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경기장 주변 및 관광지 인근 대형 음식점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며, 군은 경미한 위반 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식중독 예방 교육을 병행하여 실질적인 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했다.

진안군은 특히 2026년 진안 방문의 해를 준비하며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진안의 넉넉한 인심과 더불어 '청정 위생'이라는 신뢰를 주기 위해 지역 외식업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위생 관리 참여도 함께 알렸다.

진안군 관계자는 "파크골프 대회 등 전국 단위 행사를 앞두고 진안을 찾는 많은 이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철저한 현장 점검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진안군의 위생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경찰서, 학교 주변 안전 확보 총력

관내 중학교 주변 현장 점검

임실경찰서(서장 류관승) 최근 학생 안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가시적인 예방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관내 중학교 주변 치안환경을 직접 살피는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서장이 직접 관내 중학교 등·하교길 현장을 방문하여 위험요소를 살피고, 현장경찰관들과 함께 순찰 노선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청소년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교통사고 등 학생들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생 생활권 사각지대 확인, 순찰활동이 필요한 지역, 치안 인프라 정비 진단 및 보수했다.

류관승 임실경찰서장은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경찰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학생 생활권에서 가시적인 예방 활동을 지속해 지역 사회의 안전 체감도를 높여겠다"고 밝혔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제11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출범

민·관 협력체계 강화

지역사회보장 향상 기여

진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0일, 사회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지역 사회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제11기 진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했다.

제11기 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유정 전북진안지역사회복지센터장이 선출됐으며, 유정 전북진안지역사회복지센터장이 선출됐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총 15명의 민간위원과 공영역의 4명의 위원이 위촉·임명됨으로써 제11기 진안군지역사회보장협

의체의 구성을 완료했다.

제11기 진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7개의 실무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관이 함께하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및 지역복지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유정 민간위원장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과 제12회 전북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개최 등의 당면 과제와 지역복지 강화 및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활동에 협의체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서울보인고, 축구대회 우승 기념 군산시에 백미 기탁

서울보인고등학교 축구부는 지난 21일 '2026 금석배 전국고등학교축구대회' 우승을 기념하여 군산시 관내 저소득 세대와 소외계층을 위해 백미 300kg(80만원 상당)을 군산시에 기탁했다. 이번에 기탁된 우승 기념 백미는 스포츠를 통한 나눔의 의미를 담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서울보인고등학교 관계자는 "축구의 도시 군산에서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금석배 우승컵을 들어 올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라며 "선수들의 땀과 노력으로 이뤄낸 우승의 기쁨을 군산시의 소외된 이웃들과 따뜻한 나눔으로 함께할 수 있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스포츠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치열한 명승부 끝에 값진 우승을 차지한 서울보인고 축구부에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라며, "우승의 기쁨에 머무르지 않고 군산시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까지 실천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보내주시는 소중한 쌀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남원 법무사박경수사무소, 취약계층에 120만원 기탁

남원시 운봉읍에 위치한 법무사박경수사무소(법무사 박경수)가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운봉읍 행정복지센터는 법무사박경수사무소에서 올해 상반기를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금 12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박경수 법무사의 이웃사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20만 원을 기부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어김없이 12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이어지는 정기적인 기부는 지역사회의 큰 귀감이 되고 있다.

이번에 전달된 기부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운봉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지정 기탁된다.

/남원=김종원 기자

전북학생해양수련원, 전국 교육요원 연수회 개최

전국 25개 기관 200여명 참석 학생 안전교육체험활동 논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해양수련원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부안 일원에서 '2026 전반기 전국학생교육원발전협의회 교육요원 합동연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국학생교육원발전협의회가 주최하고 전북학생해양수련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전국 25개 학생교육원 소속 원장과 교육요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학생 체험활동 운영

사례와 안전교육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전북학생해양수련원 내 해양안전체험관과 수상안전체험관 등 교육 시설을 견학했다.

이와 함께 부안 변산반도의 생태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기관 간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전북학생해양수련원은 1998년 개원 이래 누적 22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해양수련교육 실적은 공유하며 체험 중심 교육의 역할을 강조했다.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과 김지유 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은



이날 현장에 참석해 각 기관의 경험 공유와 향후 체험교육의 방향 모색을 당부했다. /최성민 기자

태흥한돈영농조합법인, 익산에 돈육 등뼈 기탁

돈육 등뼈 10톤 전달

익산시에 이웃들의 영양 가득한 식사를 지원하는 나눔이 전달됐다. 익산시는 지난 22일 '태흥한돈영농조합법인(대표 이정화)'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돈육 등뼈 10톤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된 돈육 등뼈는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와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무료급식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정화 대표는 "이웃들에게 조금

이나마 따뜻한 위로와 도움을 드리고자 기부를 결정했다"며 "익산을 기반으로 성장한 향토기업인 만큼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태흥한돈영농조합법인에 감사드립니다"며 "기탁품은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신속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부안 건설교통과, 농가 일손돕기 실시

부안군 건설교통과는 지난 22일 본격적인 영농 수확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산면의 한 농가를 찾아 마늘종 자르기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일손돕기에는 건설교통과 직원 18명이 참여해 마늘종 자르기 작업을 함께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참여자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작업에 임하며 농가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특히 이날 현장에서는 농반기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다. 직원들은 작업에 직접 참여하며 농가의 부담을 함께 체감하고, 현장 중심 행정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농기주는 "직원들이 직접 찾아와 큰 도움이 됐다"며 "바쁜 업무 중에도 농촌 현장에 관심을 가져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고창 농업정책과, 농반기 인력난 해소 힘 보태

고창군 농업정책과 김용진 과장은 직원 10여명은 지난 22일 오전 농반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일손돕기는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인 인력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령농·영세농 등 취약농가의 농반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직원들은 감재배 농가를 찾아 감꽃 수거 작업을 중심으로

농작업에 참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참여 직원들은 바쁜 업무 속에서도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체감하며 농업인의 고충을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고창군은 복분자 수확 등 농반기 인력 수요 집중 시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 과·관·소 및 읍·면별로 영세농 등 취약농가의 농반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2회 이상 추진하는 등 농가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종합노인복지관, 애향청년회와 짜장면 나눔 봉사

고창군종합노인복지관(관장 도형스님)은 지난 21일 (사)고창군애향청년회(회장 백병현), 도아짬뽕 고창점(대표 김현오)과 함께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공연 및 짜장면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정과 활력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오전에는 흥겨운 트로트 공연과 다양한 선물 증정 이벤트가 진행돼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점심시간에는 도아짬뽕 고창점의 후원으로 정성껏 준비된 짜장면이 특식으로 제공됐으며, 특히 (사)고창군애향청년회 회원들이 직접 배식 봉사에 참여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사)고창군애향청년회 백병현 회장은 "회원들의 작은 정성이 어르신들의 환한 미소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나눔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곳곳에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 무장면지사협, 결식위기가구 50세대 반찬 지원

고창군 무장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1일 고독사 및 결식위기가구 50세대에게 밀반찬 지원행사를 진행했다.

결식위기가구 50세대를 대상으로 오이소박이, 애호박 볶음 등 5종으로 구성된 밀반찬으로 위원들이 가정방문 및 안부인사와 함께 전달했다. 무장면은 매월 결식위기가구 대상 정성가득 솜씨가득 반찬 지원사업을 지속하여 항상 고독사 위험군 및 결식위기가구의 안부 확인 및 상태를 파악하고 있다.

류창현 위원장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식사가 어려운 무장면의 가족들에게 반찬을 전달하여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다.

강필구 무장면장은 "밀반찬 지원 받으시는 분들이 힘차고 건강한 가정의달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1 비운다



2 헹군다



3 분리한다



4 섞지 않는다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해 4가지만 기억하세요!

〈一事一言〉



‘꼬리 자르기’로 얼룩진 교육감 선거, 엄정 수사가 답이다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전라북도 교육의 수장을 선출하는 재보궐 선거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본지 <선거 첫날부터 ‘금품 의혹’ 격돌... 이남호 불참·천호성 ‘사퇴하라’> 단독 보도는 작금의 전북 교육감 선거가 직면한 부끄러운 자화상을 여실히 보여 준다. 이번 선거는 전일 교육감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막대한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하며 치러지는 유권자의 엄중한 심판 무대다. 당연히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 그리고 전북 교육을 바로 세울 정책 대결이 중심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현실은 참담하다. 선거운동 시작과 동시에 터져 나온 이남호 후보 캠프의 ‘언론인 금품 제공 의혹’과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 소식은 정책과 비전을 모두 집어삼키며 전북 교육의 명예를 또다시 실추시키고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사태를 대하는 후보 측의 태도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의혹의 당사자인 이남호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 예정된 주요 일정과 토론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침묵으로 일관했다. 치명적인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도민 앞에 나서서 해명하기는커녕 소통의 문을 닫아버린 것이다.

더욱이 후보 캠프 주변에서는 벌써부터 이번 사태를 ‘일부 관계자의 개인적 일탈’로 선을 그으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른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책임 회피다. 이는 전북도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위기를 모면하려는 구태 정치

의 알뜰한 전술이자, 교육의 변화를 염원하는 유권자들을 철저히 기만하는 행위다.

이에 맞선 천호성 후보는 “아이들에게 도덕을 가르쳐야 할 교육감 선거가 추잡한 범죄 의혹으로 얼룩졌다”며 이 후보의 즉각적인 사퇴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정책 대결 대신 ‘도덕성 파산’과 ‘사퇴 공방’이 선거판을 지배하게 된 이 비극적 상황의 책임은 전적으로 의혹을 자초하고 숨어버린 진영에 있다. 교육감은 단순한 행정 관료가 아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정의, 도덕을 가르치는 교육계의 최고 수장이자 상징이다. 그런 자리를 겨냥하는 후보의 안방에서 ‘돈 선거’ 의혹이 터졌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도민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극에 달해 있다. 만약 이를 ‘하급자의 과잉 충성’이라는 상투적인 변명으로 덮으려 한다면, 이는 전북 교육을 또다시 암흑기로 몰아넣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은 모호한 부인이나 꼬리 자르기가 아니다. 명백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다. 선거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 의혹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다. 향후 전북 교육의 도덕적 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후보 본인이 직접 나서서 소상히 밝히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측근의 뒤에 숨어 수사 기관의 눈치만 살피는 행태는 교육감 후보로서 자격 미달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결국 이 진흙탕 싸움을 끝내고 전북 교육의 파산을 막을 열쇠는 사법당국이 쥐고 있다. 사법당국은 선거 기간이라는 정치적 핑계 뒤에 숨어 수사를 미루거나 눈치를 보아서는 안 된다. 본지가 보도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이번 ‘금품 제공 의혹’의 전말을 밝히기 위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지금의 출처가 어디인지, 뒷선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를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꼬리 자르기’식 면피를 막을 수 있다. 만약 수사가 질질 끌며 선거일 이후로 밀려난다면, 전북 교육은 선거가 끝난 후에도 또다시 ‘당선 무효형’이나 ‘사법 리스크’라는 잔혹사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전일 교육감 체제에서 그 폐해를 뼈저리게 경험하지 않았는가.

선거는 미래를 향한 축제여야 하지만, 지금의 전북 교육감 선거는 구태의연한 범죄 의혹과 무책임한 회피로 얼룩져 있다. 이를 바로잡는 유일한 길은 사법당국의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뿐이다.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의 속도를 높여라. 그것만이 전북도민들이 혼란 없이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우리 아이들의 눈앞에 부끄럽지 않은 전북 교육을 재건하는 첫걸음이다. 수사당국의 단호하고 빠른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설

테러 암시까지 등장한 전북 선거, 정치가 선을 넘고 있다

전북 정치가 점점 위험한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를 겨냥한 SNS 게시물 논란은 단순한 악성 댓글 수준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불안감을 낳는다. “수갑과 권총을 가져가라”는 표현과 “잡으러 간다”는 식의 과격한 언어는 정치적 풍자를 넘어 신변 위협과 폭력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실제 실행 여부를 떠나 공포와 위협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선거는 원래 치열하다. 비판도 있고 검증도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제거 대상으로 삼는 순간 무너지기 시작한다.

정책과 비전은 사라지고 증오와 공격만 남게 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유권자와 지역 공동체다. 최근 전북 선거판에서 이어지는 금품 의혹, 고발전, 음해성 폭로, SNS 혐오 표현들은 지금의 지방정치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정치권이 이러한 극단적 분위기를 방치하거나 은근히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지층 결집을 위해 상대 진영에 대한 적개심을 부추기고, 온라인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과격한 표현들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치가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분노를 증폭시키는 장치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선거는 전쟁이 아니다. 상대 후보는 제거 대상이 아니라 경쟁해야 할 정치적 상대일 뿐이다. 특히 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논의해야 할 자리다. 그런데 지금 전북 정치에서는 정책보다 증오가 더 크게 들리고 있다. 이대로라면 선거가 끝난 뒤에도 지역사회는 깊은 상처와 갈등만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가 선을 넘으면 민주주의도 무너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강한 공격이 아니라 최소한의 품격과 절제다. 전북 정치가 더 늦기 전에 혐오와 폭력의 언어에서 벗어나야 한다.

독자투고

아이들의 안전, 브레이크 장착하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른바 ‘픽시(Fixie) 자전거’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페달을 멈추 뒷바퀴를 미끄러 뜨리는 ‘스키딩’이나 제자리에서 균형을 잡는 ‘스텐딩’ 같은 묘기를 부릴 수 있다는 매력 때문이다. 하지만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도로위에서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른바 픽시(Fixie) 자전거는 고정 기어(Fixed Gear) 자전거를 줄여서 부르는 말로 트랙 경기 용으로 개발되어 주로 선수들이 사용하고 있으나, 제동장치가 없는 특성상 돌발상황에 자전거를 멈추기 어려워 그만큼 사고의 위험이 높다.

이러한 픽시 자전거는 최고속도가 50-60km에 달한다. 또한 일반 자전거는 손으로 제동장치를 작동해 멈추지만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는 페달을 돌리지 않고 있으면 속도가 줄면

서 미끄러지듯 멈추는 만큼 일반 자전거에 비해 제동거리가 최대 12배나 길어 돌발상황 발생 시 대처가 매우 어렵다. 실제로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제어하지 못한 중학생이 택시와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규정해 다른 차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처벌된다. 18세 미만 청소년이 단속될 경우 부모에게 통보되며 반복적인 경고에도 부모의 적절한 조치가 없는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인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픽시 자전거는 경기장에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장비일 뿐, 도로 위에서는 ‘홍기’가 될 수 있다.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 이전에 가정과 학교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도에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전주덕진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사 한상원

오늘의시

유용(有用) / 송기원

육양목 속치마가 빨랫줄에서 하얗게 바래고 있네 누가 아꼈다가 꺼낸 기다림일까	무늬가 되네 자세히 보니, 연한 분홍빛의 모란꽃으로 활짝 피고 있군	밭아도 좋은 걸 그렇게 이승에서의 살냄새도 몇 도만 더 짙둑, 모란꽃에 스며들 걸 누군가의 기다림을.
내 마지막 남은 살점이 거기에 달라붙어 오래전의 희미한	내 살점의 마지막 유용이라면 몇 도만 더 조도(照度)가	내가 아닌 살아 있는 사람도 알아볼 수 있게

시인 약력 : 1947년 전남 보성 출생. 서라벌예대 문예창작과를 졸업. 1974년 단편소설 '경외성서'가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 '회복기의 노래'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등단했다. 군부독재 시절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4차례 옥고를 치렀다. 제2회 신동엽창작기금, 제6회 김동리문학상, 제11회 대산문학상 소설부문 등을 수상했다. 2024년 향년 77세로 세상과 작별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등록번호 전북가-00022(발간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발행·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8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종양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발북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8-6049	
송전지사-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당신의 하루, 전북타임스가 함께 시작합니다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지역과 산업을 잇는 성장 거점

“남들이 멈춘 곳에서 출발” 이영철 원장 취임 1년, R&D·기업지원·인력양성 바이오 전주기 플랫폼 구현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이영철 원장이 취임 1년을 맞아 2025년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돌아보고, 2026년 ‘남원형 바이오 전주기 생태계’ 안착을 향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남들이 멈춘 지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만듭니다.” 이영철 원장의 철학은 정직한 숫자로 증명됐다. 지난 한 해 동안 ▲영호남 유일 화장품 시험검사·임상센터(남원바이오테스팅센터) 준공 ▲지역기업 매출 590억 원 달성 ▲특허 8건 출원 ▲베트남 수출계약 260만 달러 등 굵직한 실적을 냈다.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박사 출신으로 민간과 공공을 넘나든 이영철 원장은 단순한 연구 성과를 넘어, 남원 지역 산업의 근본적인 구조를 혁신하는 데 주력해 왔다.

■ 내실 다진 조직 운영, 중장기 전략 목표 100% 달성

이영철 원장은 취임 첫해를 조직 운영의 내실을 다지는 동시에 가시적인 성과도 창출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삼았다. 남원시와 함께 중장기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고, 기관 성과와 연동되는 평가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해 혁신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작은 성공을 반복해 큰 성공으로 연결한다’는 운영 철학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며, 중장기 4대 추진 전략 목표율을 100% 달성하는 쾌거를 거뒀다.

■ 기업 맞춤형 R&D 도약 및 글로벌 특허 확보 연구개발(R&D) 분야의 도약에 눈에 띈다. 기업 수요에 맞춘 소재 및 제형 개발, 기술지원 등 총 33건의 실적을 달성했다. 기술컨설팅을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지정해 지역 농가와 기업

에 무료로 제공하는 등 연구 역량의 지역사회 환원 체계를 제도화했다.

아울러 한미양행(배통나무·마가목 활용 수출용 제품), 에스비씨(오미자 활용 탈모 완화 제품) 등과 공동 R&D를 진행하며 실질적 산업화에 매진하고 있으며, 스마트팜과 연계한 바이오 작물 재배 기술 개발도 본격화했다. 초기 단계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결과, 목표 대비 2.3배에 달하는 8건의 특허(미국·베트남 국제출원 2건 포함)를 확보했다.

■ 우수 기업 유치와 핵심 인프라 ‘바이오테스팅센터’ 준공

인프라 확충과 기업 유치 측면에서도 굵직한 발자취를 남겼다. 전략기업인 한미화장품을 남원첨단산업비즈니스센터 앵커기업으로 유치한 데 이어, 제이투케이바이오, HLK클리닉센터, 바이오제닉스 등 3개사와의 입주 협의를 완료해 올해(2026년) 추가 유치로 이어졌다. 신규 지정받은 창업보육센터 공간이 포함된 첨단산업비즈니스센터는 현재 약 92%의 높은 입주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총 190억 원을 투입한 영호남 유일의 화장품 시험검사·피부임상 통합 플랫폼 ‘남원바이오테스팅센터(NBTC)’ 준공은 가장 핵심적인 성과다. 현재 306종 규모의 장비를 순차적으로 도입 중이며, 본격 운영 시 지역 기업들이 수도권에 의존하지 않고 원인 분석부터 제시험 설계까지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재정 자립 5개년 계획 수립... 신뢰받는 공공 기관 도약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 자립 기반도 탄탄히 다졌다. 시 출연금 의존 구조에서 벗

어나고자, 재정자립도를 현재 19.5%에서 2030년 50.5%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기관 설립 후 처음으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며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에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 2026년 목표 상향... 바이오 전주기 생태계 안착 주력

2026년 올해는 그동안 다져온 기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산업 성과를 거두는 원년이 될 전망이다. 연구원은 남원바이오테스팅센터 본격 운영에 따라 지원 기업 매출 목표 650억 원, 특허 12건, 재정자립도 29%로 지표를 일제히 상향했다.

이 원장은 “가시적인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탄탄한 구조를 만드는 일”이라며, “특화 원료 발굴부터 지역 기업의 제조 및 생산, 시험·임상, 최종 사업화까지 남원 안에서 매끄럽게 순환하는 ‘바이오 전주기 생태계’를 안착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서 “남들이 멈춘 지점에서 우리는 출발한다”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지역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이라는 결과로 증명해 나갈 기관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연구원의 비전은 현재 남원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미래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과 정확히 궤를 같이한다. R&D부터 인증, 맞춤형 기업 지원, 인력 양성까지 아우르는 바이오 전주기 플랫폼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바이오산업은 남원의 미래 먹거리이자 핵심 신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연구원과 긴밀히 협력해 탄탄하게 구축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에서 경쟁력을 갖춘 남원형 바이오산업 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지역 경제의 혁신적인 도약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김종원 기자